강헌

좌파 명리학

이론세미나 VI

命理

제五강

적천수

제7장 체용정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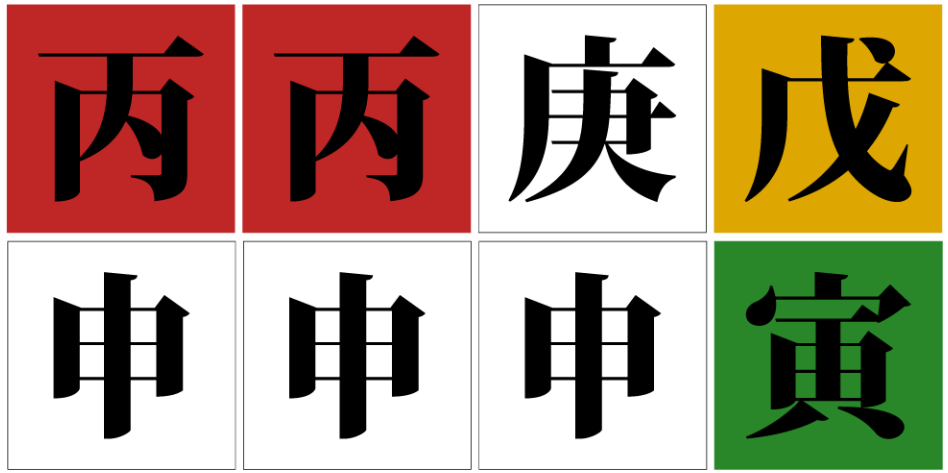
체용 (體用)

道有體用 不可以一端論也
도유체용 불가이일단론야

要在扶之抑之得其宜
요재부지억지득기의

도(道)에는 체(體)와 용(用)이 있으니
한 가지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.
억누르고 도와주되[抑扶] 그 중 마땅한 방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.

약(弱)함이 극(極)에 달하여 종(從)하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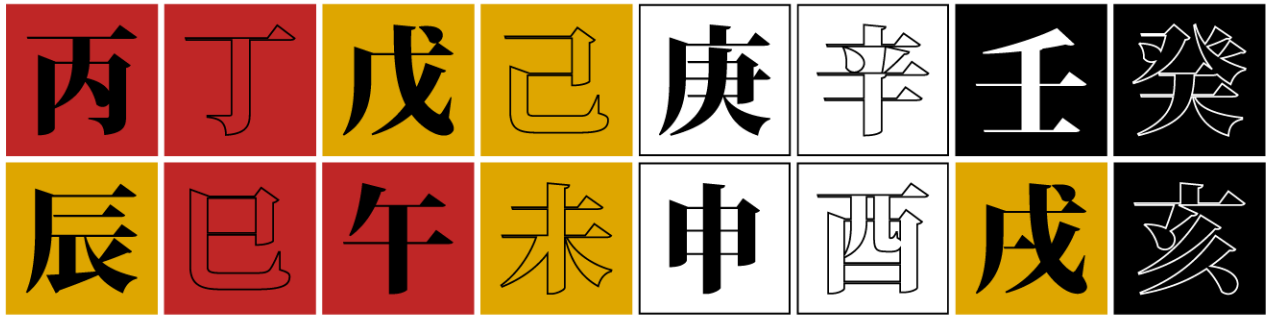
정신 (精神)

人有精神 不可以一偏求也
인유정신 불가이일편구야

要在損之益之得其中
요재손지익지득기중

사람에게는 정(精)과 신(神)이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.
덜어주고 보태주되[損益, 손익] 그 중화(中和)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.

오행이 유통생화(流通生化)하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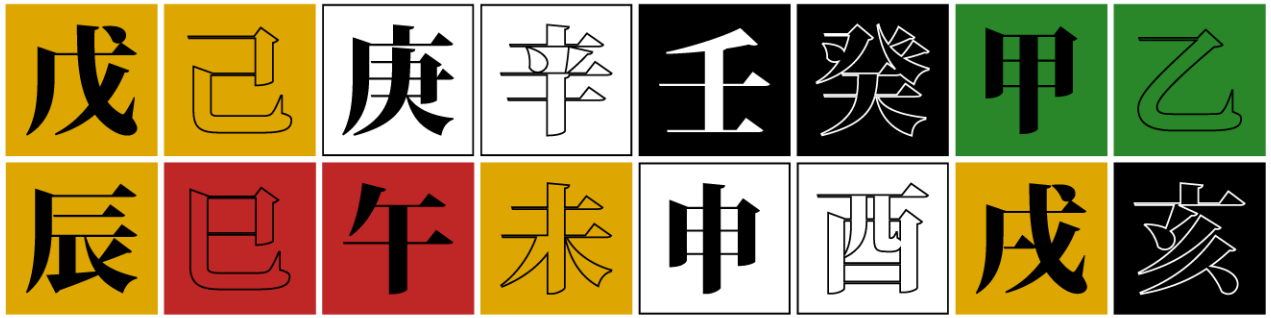
오행이 유통생화(流通生化)하지 못한 경우

중화 (中和)

既識中和之正理
기식중화지정리
而於五行之妙 有能全焉
이어오행지묘 유능전언

사주 기운에 치우침이 없음[中和, 중화]의 올바른 이치를 이미 깨달았다면
오행(五行)의 흐름의 오묘함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.

중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



중화를 이룬 경우

인원 (人元)

月令乃提綱之府 譬之宅也
월령내제강지부 비지택야

人元爲用事之神 宅之定向也
인원위용사지신 택지정향야

不可以不卜
불가이불복

월령(月令)은 사주(四柱)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집에 비유할 수 있고
지장간(支藏干)인 인원(人元)은 일을 처리하는 신(신)으로 집의 정해진 방향과 같으니
이들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낼 수 없다.

인원(人元)이 용신을 도와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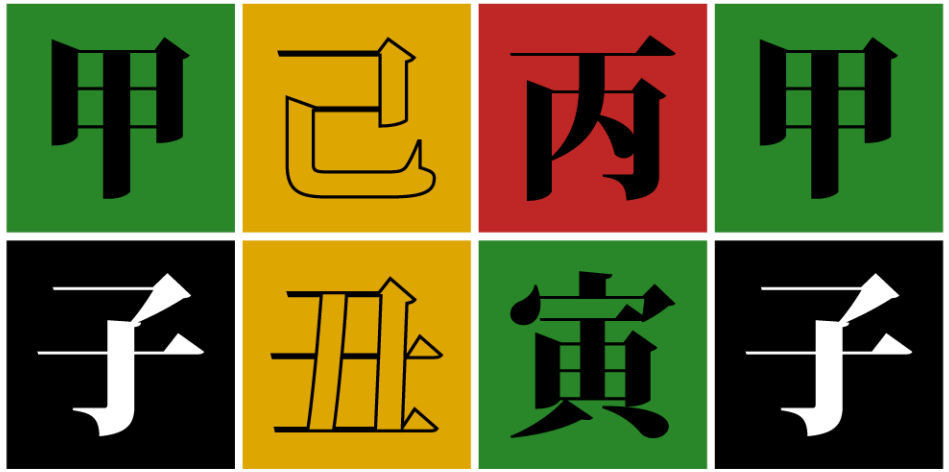
인원(人元)이 용신을 도와주지 않은 경우

진신 (眞神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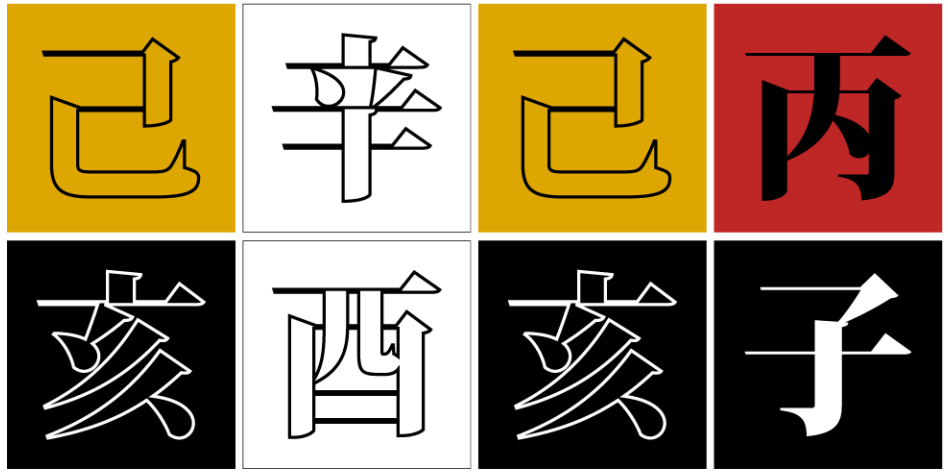
令上尋眞聚得眞 假神休要亂眞神
영상심진취득진 가신휴요란진신
眞神得用生平貴 用假終爲碌碌人
진신득용생평귀 용가종위록록인

월령(月令)에서 참된 용신[眞神, 진신]을 찾아 얻고 이것이 천간에 투출하면
가신(假神)은 이 진신(眞神)을 어지럽히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.
진신이 용신(用神)이 되면 일평생 귀함을 누릴 수 있으나
가신으로 용신을 삼으면 별 볼일 없이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된다.

진신이 월령을 차지한 경우



진신무정(眞神無精) 가신허탈(假神虛脫)의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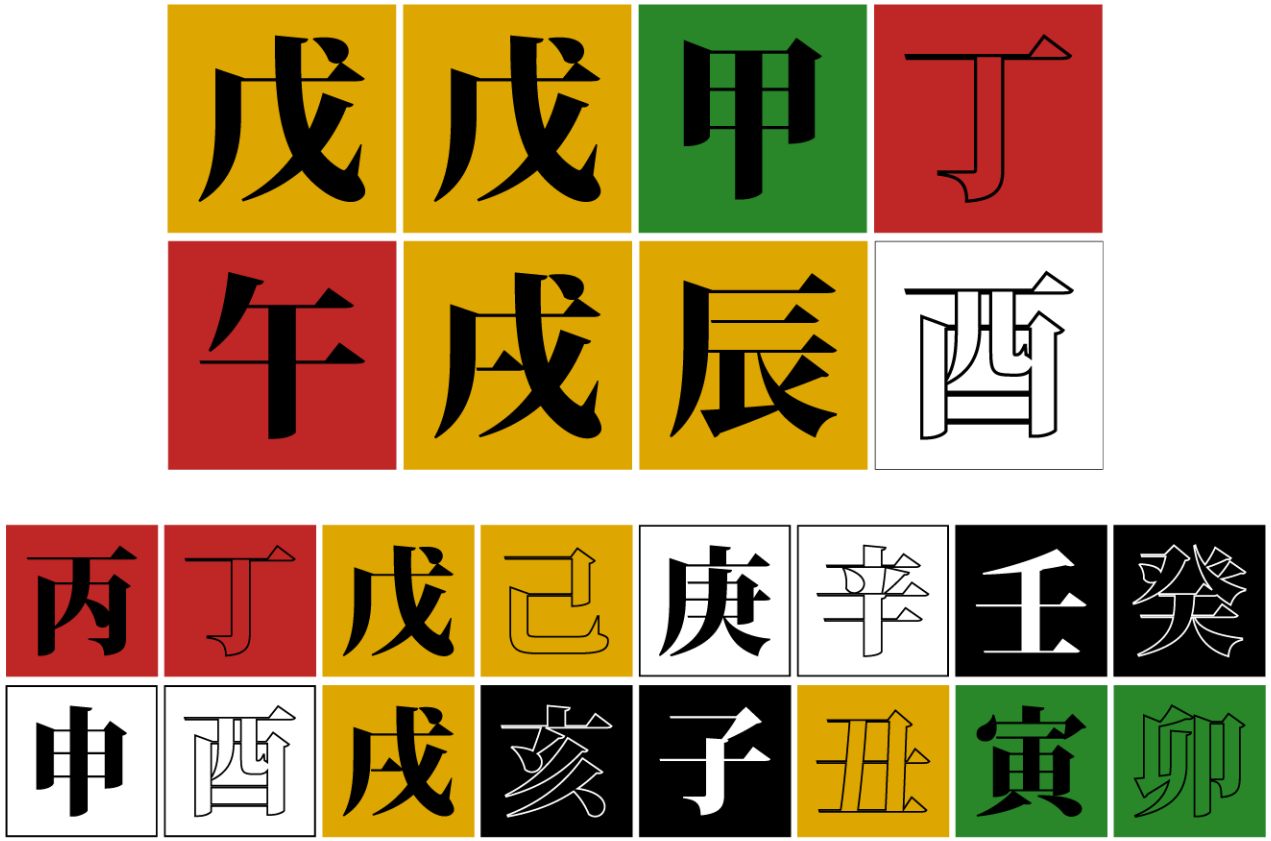
은원 (恩怨)

兩意情通中有媒 雖然遙立意尋追
양의정통중유매 수연요립의심추

有情却被人離間 怨起恩中死不灰
유정각피인이간 원기은중사불회

일주(日主)와 희신(喜神)이 정(情)으로 통하고 그 사이에 이를 이어주는 매체가 있으면
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 뜻한 바를 찾아 이루려 하지만
정이 있다 해도 중간에서 이간질로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자가 있으면
은혜로운 가운데 원한이 생겨나니 죽어도 재가 되어 사그라지지 않으리라.

둘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는[如中有媒, 여중유매] 경우



타인으로부터 이간질을 당한[被人離間, 피인리간] 경우

기반 (羈絆) - 합이불화(合而不化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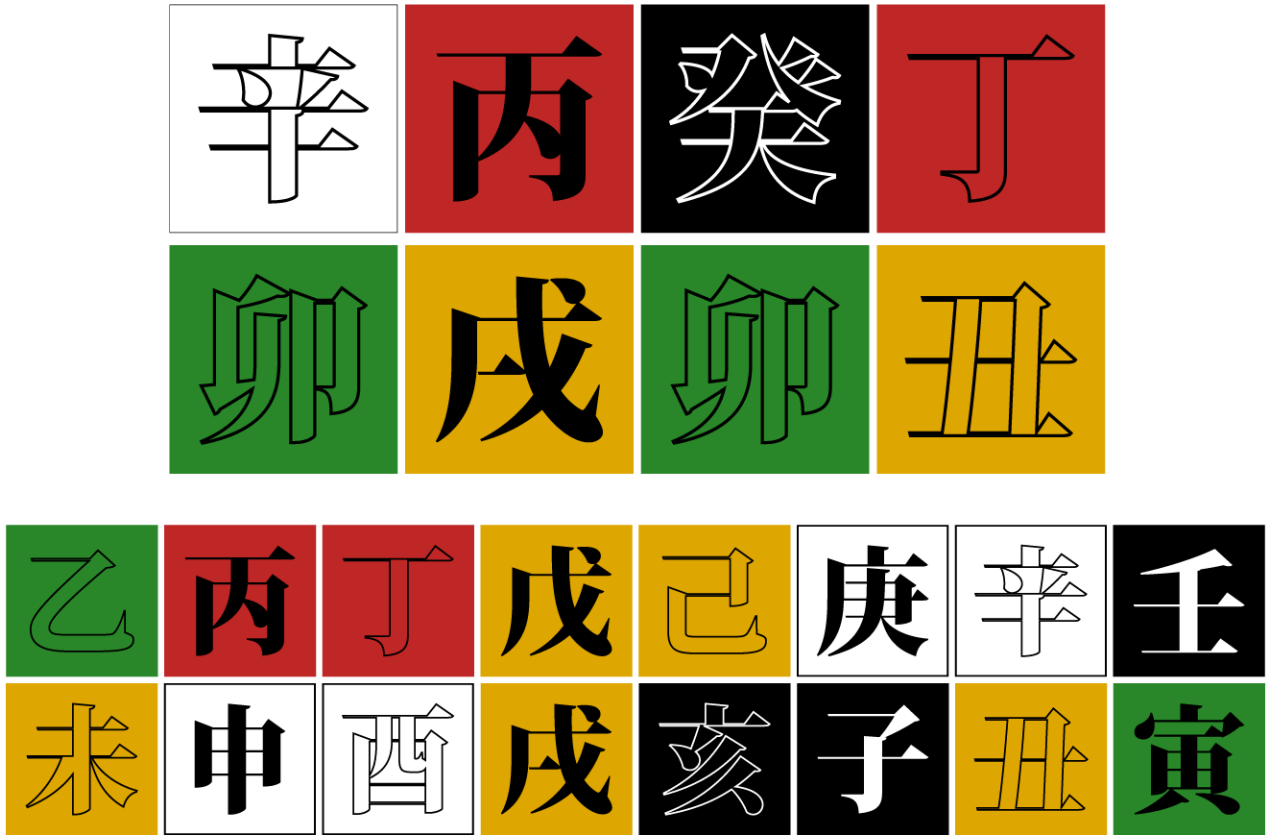
出門要向天涯遊
출문요향천애유

何事裙釵恣意留
하사군채자의류

대문을 나서 아주 먼 낯선 곳까지 유람하려고 하는데
어찌하여 아녀자가 방자하게 장부의 뜻을 머뭇거리게 하는가

용신이 기반(羈絆)이 된 경우

일주가 기반(羈絆)이 된 경우



기반 (羈絆) - 봉충득용(逢沖得用)

不管白雲與明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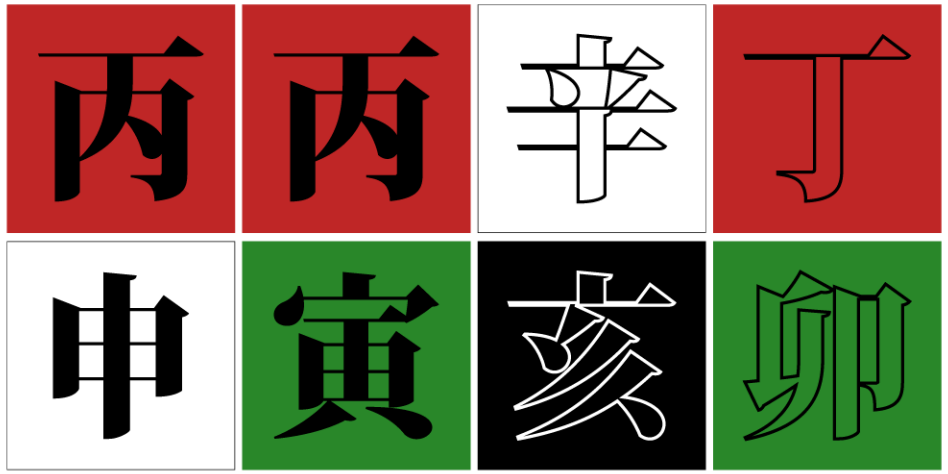
불관백운여명월

任君策馬朝天闕

임군책마조천궐

흰 구름과 밝은 달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
그대로 하여금 말을 채찍질하며 대궐로 향하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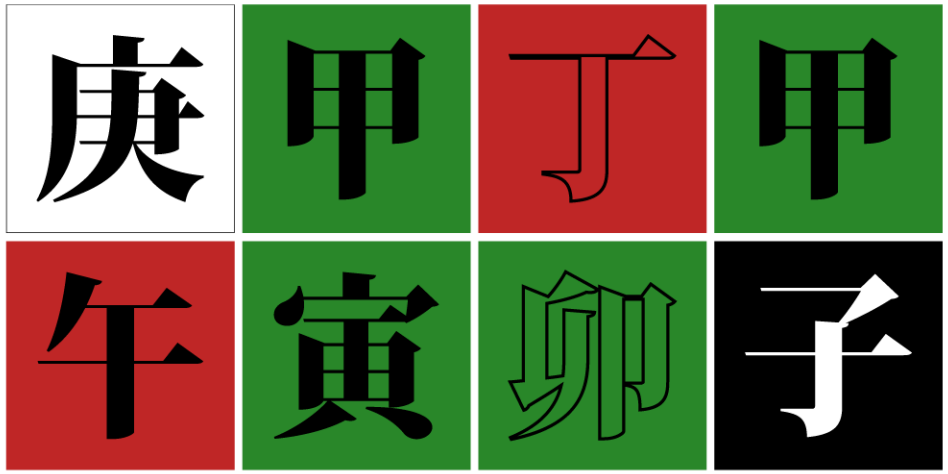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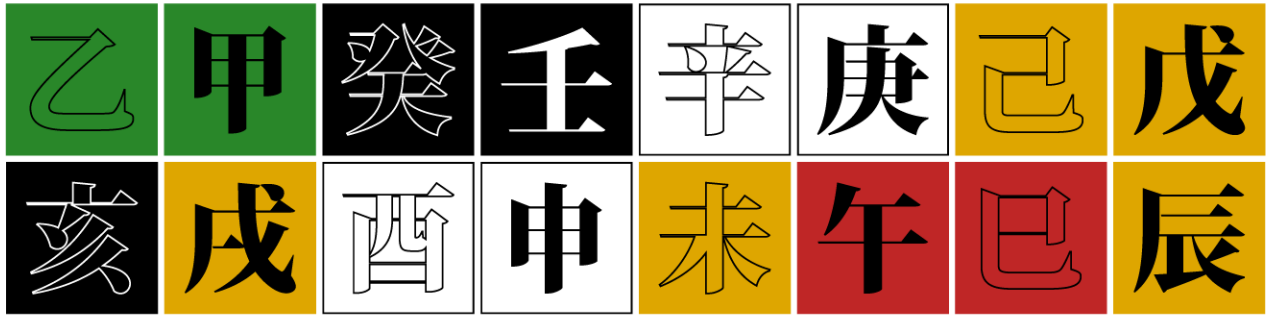
일주의 기반(羈絆)을 충으로 풀어준 경우



한신 (閑神)

一二閑神用去麽 不用何妨莫動他
일이한신용거마 불용하방막동타
半局閑神任閑着 要緊之場自作家
반국한신임한착 요긴지장자작가

사주에 한두 개의 한신(閑神)뿐이라면 이들이 무슨 작용을 하겠으며
작용하지 않는데 어찌 남이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겠는가.
사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신은 제멋대로 한가롭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
요긴하게 쓰일 상황에 이르면 자기 스스로 제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.

한신의 도움을 받은 경우

한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